

“헌재, 경고 무시…1천만 구국투쟁”

보수 기독교계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고 행동한다” 성명 발표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 보수교단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 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등 보수 기독교계 단체들이 12일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불의에 분연히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역사는 행동하는 국민만이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왔다.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울 것”이라며 “국민 각성 행동에 동참하라!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고 행동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선혈들이 고귀한 피를 흘리고 땀으로 일구는 반만년 역사의 자유대한민국이 중공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정당한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과 특정 세력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것도 내란수괴로 탄핵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닌, 특정 집단과 외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1. 대한민국의 위기! 이것이 현실이다!

▷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 중국의 간섭과 친중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

▷ 공정성을 잃은 정치적 판결을 하려한다.

▷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주권이 침해당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국이 눈앞에서 붕괴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2. 탄핵소추, 탄핵심리는 모두 불법이다.

헌재가 묻고 들어지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회에서 헌법독립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을 듣지 않고 또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다수결로 단 20분 만에 탄핵소추를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막았으므로 참정권을 박탈하는 위헌이다.

3.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일 뿐이다.

▷ (헌법 제88조 1항, 2항) 국무회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심의기관이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헌법 제66조)

▷ 헌법 제89조에 명시한 필수 심의절차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 계엄법 3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하위법률이 모법인 헌법을 규정할 수 없다.

▷ 대통령의 비상시 통치행위는 모든 법률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 안보와 비밀유지가 중요한 경우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 독단만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4. 우리는 선언한다!

헌재재판관들이여!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없다.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는 법적 구속력없는 자문행위일뿐이다. 헌



법 제89조에 의거 특정 심의절차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증거조작, 날조가 드러났고 탄핵몰이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탄핵 행위를 각하하라.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오히려 심의 절차 없이 20분만에 불법으로 탄핵한 국회의 불법소추안을 계속 심리하려하는가?

시민의 분노 소리가 정면 들리지 않는가? 당신들은 대대로 저주의 말을 들으며 만고의 역적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중 대통령 탄핵 각하를 발표하라. 대통령을 속히 직무 복귀시켜서 국정을 안정시켜라. 시민의 분노가 타오르면 교계와 시민들은 제2의 4.19 그 이상으로 행동할 것이다. 행동을 시작한 후에는 용서와 자비는 없다.

▷ 헌법재판소는 즉각 정치적 판결을 중단하고, 각하하라

▷ 주권자 국민이 만들어준 헌법을 임의로 적용하지 말라

▷ 친중 세력과 중공침략을 막기위해 국민은 단결 저항한다.

▷ 국회의 불법적 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필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빼앗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는 헌법에 명시한 3.1독립정신과 4.19시민저항의 정신으로 지금 위기에 처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침략한 중공세력과 동조하고 있는 친중·친북세력을 몰아내는 행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 선혈들과 군인들이 흘린 숭고한 순국의 피를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과 함께 불법을 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저항운동을 함께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여러분! 답대하십시오.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필히 지켜야만 합니다. 중공은 동북공정과 함께 이 나라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6.25전쟁 당사자로서 중공과 전쟁을 하여 승리합니다. 공산불손세력들까지 모두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전쟁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여 공산독재하에서 신

음하는 14억 인구에게 자유와 광명을 찾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전쟁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므로 대한민국 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와 애국단체들과 주권자인 애국국민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군이 참여하고 유엔사령부가 침략국에 대해서 함께 전쟁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우방국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참전국은 물론 기타 도와주시는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필히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지구상에서 사악한 공산 전체주의 국가를 소멸시킵시다.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학대하고 확실한 자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몇 차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일천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구국 투쟁을 할 것입니다. 불법에 동조하는 자들과 그 가족들은 돌아서지 않는 한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이란 대통령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대통령과 정부를 살리려는 행동은 구국운동입니다. 이에 협력하는 분들은 애국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 역사는 행동하는 국민만이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을 빼앗으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의 조국을 지킬 것이다!

▷ 피를 흘리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라!

▷ 국민 각성 행동에 동참하라!

▷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2025년 3월 12일(수)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 보수교단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 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과정과 결말’



조용목 목사

“우리가 알게되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회의나 갈등은 마치 홍역을 치르듯이 누구나 겪게 되지만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하여 가면서 점차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자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원치 않는 다른 상황에 이르도록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걸출한 세 사람의 체험적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 앞에 도달하여 진을 치자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출 14:13,14) 자신이 계획하고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구름기둥이 인도하여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어도 모세는 당혹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출 14:1~4) 직면한 난관을 결말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요셉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독실한 믿음을 가졌고 성품이 선하고 진실했던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주신 비전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 왕의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용기를 내어 성실하게 일하여 경호대장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호대장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믿고 기대한 것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요셉은 당혹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당면한 곤경이 결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

리가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불러들여 왕이 하사한 기름진 땅 고센에 살도록 조치했습니다. 아버지 아람이 세상을 떠나자 보복을 두려워하며 자비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창 50:19~21) 하였습니다.

셋째는, 사도 바울이 선교활동에서 체험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무시아를 거쳐 동편에 위치한 비두니아로 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바울은 무시아의 서쪽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내려가서 머물 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도울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상황으로 진행될 때 여러분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곤란은 결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선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둘째,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고 주님의 인도와 뜻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 당면하는 곤경은 결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선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선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기독교대학 필수종교과목 제한 철폐 촉구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국가인권위 종교자유 침해 규탄 성명서

한다.

3월 3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전국 348개 대학교 교수 3,239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 기독교 대학이 학생들에게 종교과목 수강을 의무화 한 것에 대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필수 종교과목을 대체하는 과목개설을 권고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권고이므로 동반교연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기독교대학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필수 종교과목을 제한하는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24일 서울지역 기독교대학이 학생들에게 종교과목 수강을 의무화한 것에 대하여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필수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과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것으로서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

〈성명서〉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기독교대학의 필수 종교과목 수강을 제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4일 피진정대학인 서울지역 기독교대학(이하 피진정대학)이 종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인권위의 권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피진정대학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피진정대학을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목회자·성도 123명, 탄핵 반대 집단 삭발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서교총)가 3월 11일(화)부터 매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를 위한 결기를 보이는 집단 삭발식을 개최했다. 서교총의 이삭발식에는 현재까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총 123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첫날인 11일에는 시간 관계상 총 12명만 삭발했다.

이날 참여한 이들은 박원영 목사, 주복자 목사, 조규하 목사, 김윤숙 목사, 표해만 목사, 김은진 목사, 박도희 목사, 김성중 선교사, 윤석구 교수, 박재현 청년, 최현수 시민 등이다.

이 삭발식에는 황교안 전 총리, 윤상현·김민진 의원, 민경욱 전 의원, 김행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등이 참석해 지지를 표명했다.

©크루



한국기독교지도자협, 3.1절 구국기도회

대한민국 복음국가 되기 위해 기도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최병두 목사)는 지난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 회관 2층 조예홀에서 제106주년 3.1절 구국 기도회를 갖고 3.1운동이 단져주는 비폭력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1부 예배는 상임회장 민승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최병두 목사의 인사말, 공동회장 황수원 목사의 기도, 부서기 김원제 목사의 성경봉독, 양겔로스 장로중앙단의 찬 양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 조원석 목사는 대하 29:1~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담힌 문 열여라’라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충만케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임재하실 때 믿음이 충만케 된다.”라 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도자 여러분은 마름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나라가 복음 국



가가 되도록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과 국정 안정,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 한국교회와 지도자협의회를 위해 김홍태 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를 한 후 전 대표회장 김동권 목사의 격려사,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의 광고, 직전대표회장 김진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강연회는 이사장 이강욱 장로의 사

회로 장은성 선교사의 몸찬양, (사)한국기 독언론협회 이사장 강춘오 목사의 ‘나는 우리 사회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 됐다.

이어 안영로 상임이사의 독립선언 낭독, 공동회장 감사철 장로의 성명서 낭독 후 애 국가 제창과 만세삼창으로 행사를 마쳤다.

한기보협, 3.1절 기념예배

신앙선배들 정신 이어 국가와 민족 위해 기도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2월 28 일(금)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소재 연악교회(담임 박영호 목사)에서 교단 장 및 단체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는 땅에서 하나인 나라를 세운다’라는 표어 로 3.1절 기념 감사예배 및 국가와 민족을 위 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유광석 목사의 사 회로 공동회장 이창희 목사의 기도, 사회 자의 성경봉독, 함순정 선교사의 특별찬양, 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 됐다.

박영호 목사는 빌 21:8~11 말씀을 본문 으로 ‘보수주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3.1운동 정신은 28선언서에 자유, 평 등, 정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신앙 선배들의 나라사랑으로 지켜왔다. 1910년 한 일합방으로 우리 국가가 주권을 일본에게 빼



앗기고 나라 잃은 한이 되어 목청이 터지도 록 커다란 합성이 삼천리강산 온 천지를 뒤 흔든 민족의 기미년 독립만세를 부르지 올해 로 106주년을 맞이했다.”라며 기억하고 기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의 안정 과 평화를 위하여’ 동아시아선교회 민규식 목사가, ‘선교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예 나우침선교회 허정희 선교사가, ‘한기보협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김담미니스트리선교

회 한성준 목사가, ‘세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총무 안상두 목사가, ‘동성에 차별금 지법 반대를 위하여’ 협동총무 임정철 목사 가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공동회장 이창희 목사의 색소폰 연 주, 합동보수 이재원 목사 인도로 애국가 제 창, 3.1절 노래와 만세삼창, 오순절총회 정명 구 목사의 기 념사, 사무총장 박영에 목사의 광고 후 합동보수 김태오 목사의 축도로 예 배를 마쳤다.

미래목회, ‘3040 부흥전략’ 포럼

교회 건축(교회 공간)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전환 필요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은 지난 3월 9일(목)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대화 홀에서 ‘3040 부흥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 을 갖고 교회의 주축이 될 3040세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실행위 장이규 목사의 사회 로 평화통일위원장 정귀석 목사의 기도, 대

표 황덕영 목사의 인사말, 임병선 목사의 강 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임병선 목사(용인제일교회)는 “교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다음세 대와 비신자가 교회에 발붙이게 해야 한다.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 건축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용인제일교회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임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 건축(공간)이 오늘날 불신반는 이유로 교회가 성도들만의 공간 즉, 우리들만의 공간이 되어 노년 세대 만 남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비용 대비 가성 비가 떨어져 예배 등을 제외한 공간 미활용 으로 이웃과 다음세대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 래한다”라며, “교회 건축이 다음세대와 불신 자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교회 에 PC방과 이마트 무인점을 개설해 다음세 대와 불신자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 목사는 또 “한국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그들은 반드시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교회의 모든 공간을 예배와 모임을 제외한 주중이나 주일에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중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한국에서 꿈꾼 하나님 나라’

선교 140년 기념 심포지엄 복음의 씨앗 거대한 나무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제물포(인천항)에 첫발을 내 디딘 지 14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심포지 엄이 3월30일 정동제일교회 변예배당에서 열린다. ‘한국선교 140주년 :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한국에서 꿈꾼 하나님 나라’라는 주 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두 선교사가 각각 세운 정동제일교회와 새문안교회가 공 동 개최한다. 1885년, 가난과 무지와 상처로 얼룩진 이 땅에 두 선교사가 주님의 뜻에 순 종하여 심은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 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선교사는 단순한 교회 개척을 넘어 교 육과 의료, 사회적 개혁을 통해 이 땅이 하나 님의 나라로 세워지길 꿈꾸었고, 이 꿈을 모 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합하고 연대하여 합 게 이루어 가길 바랐다. 심포지엄에서는 정 동제일교회의 천영태 목사가 ‘감리회 목회자 가 바라본 언더우드 선교사를’, 새문안교회 의 이상학 목사가 ‘장로회 목회자가 바라본 아펜젤러 선교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서 임희교 명예교수(장로회신학대학 교)가 ‘두 선교사가 꿈꾼 하나님 나라, 오영 교 교수(연세대학교)가 ‘아펜젤러·언더우드 의 교육 사역과 유산 계승’에 대해 강연한다.



나사연, 나라사랑 구국기도회 개최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위해 집중 기도

나라사랑국민연합(대표회장 한정수 목사 ·이하 나사련)은 3.1절을 앞둔 지난 2월 28일 , 서울 강남구 선릉로 소재 벤처대학교에서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염소명 목사의 사회로 네이션스위십의 예배 찬양, 직장선교회 회장

권혁주 장로의 대표기도, 찬양선교사 체연희 권사의 찬양, 나사련 대표총재 심재선 목사 의 담전 2:1~4 말씀을 본문으로 ‘건강한 나 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 됐다.

이어 기독교계연합 고문 안기영 목사



의 헌금기도, 나사련 대표고문 노수우 목사의 축사, 기독교계연합 대표총재 김종남 목사의 격려사 후 심재선 목사의 축도로 마 쳤다.

2부 기도회 시간에는 차승만 목사의 사회 로 집중적인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다. 강대 섭 장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전우석 장 로가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하여’, 서화숙 목 사가 ‘기독교 기관과 대표를 위하여’, 김선열 목사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강철승 목사가 ‘세계 열방과 북한 선교를 위 하여’, 한상수 장로가 ‘나사련의 발전을 위하 여’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나사련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단체로 매주 수요일 선포로 소재 일문교회 에서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갖는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해”

월드비전, 오리온재단에서 시즌 2 후원금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 환)은 지난 3월 13일(목) 서울 영등포구 월드 비전 본부에서 오리온재단과 함께 ‘2025 교 실에서 찾은 희망 시즌2’ 캠페인을 위한 후 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리온재단 및 월드비전 임직원들이 함께 참 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오리온재단은 캠페인의 성공적 진행을 응원하며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 금은 올해 캠페인에 참여한 학급의 시상품으 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한 해 동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활동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최종 시상식에서 오리온재단 이사장상과 부 상이 함께 수여된다.

교육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월드비전 ‘교 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은 2012년 학교폭 력 예방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2023년부터



코로나 후 더욱 심각해진 사이버 폭력 예방 을 위해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게 소통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초·중학교 대상 학령별 학교 폭력예방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실천력을 높이는 우리들의 핏미 Action’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김부근 오리온재단 사무국장은 “학생들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을 만들어 나가는 뜻 깊은 캠페인에 동참하 게 돼 기쁘다”며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이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오리온재단 후 원을 통해 올해 캠페인을 전국 학교로 더욱 확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 장할 수 있도록 오리온재단과의 협력해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리온재단은 2015 년부터 2020년까지 월드비전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시즌 1’을 후원한 바 있다.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수 업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출결 만을 이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과목은 비신앙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고, “역사서, 성 경 등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시험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 고 있는” 과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게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 등 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또 교육부가 종립대학교의 설립을 인가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 반하여 종립대학교의 예배, 선교, 교육 등 의 실행을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중교 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는 학생은 대학 입

학시 자율적인 대학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다. 종립대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 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은 것이며, 이에 동의한 학생들은 평가방법과 는 상관없이 필수 종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입학할 때와는 달리 입학 후 필수 종 교과목 수강을 거부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행위이다.

또 이것에 인권위가 개입하여 종교과 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위배하는 것이다.

2021년 5월 24일에는 인권위가 대법원 판결(96다37268)조차 무시하면서 단순히 출석만을 요구하는 채플마저 학생의 종교 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채플 수업의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기당 24번의 채플에 참석하도록 하고, 채플 학 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기독교 대학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 한 인권위의 결정은 종립대학의 종교교육 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만

축행위인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에조차 인 권이라 주장하는 인권위는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건전한 윤리도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 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결정을 서슴치 않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패륜적인 젠더 이데올 로기를 인권이라 주장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과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등 인권위가 마치 중국 문화혁명시대 홍위병 과 같이 날뛰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심각 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인권 위의 이데올로기적 실험이 지난 후, 국민 에게 돌아갈 그 모든 폐해에 대한 책임 문 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인권위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권을 주장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 는 좌충우돌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 력히 요구한다.

2025. 3. 3
동성애동성혼합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전국 348개 대학교 교수 3,239명)

무슬림선교 이슬람 바로알고 바로 전한다

2025년 봄 ‘이슬람 바로알기 정기세미나’ 개최

무슬림선교회 앳살람이 2025년 봄 ‘이슬 람 바로알기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4월5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토 요일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이슬람 에 대한 신학적, 문화적 이해를 돕고 무슬림 선교의 실제적인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 을 둔다.

이번 세미나는 이슬람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적 접근 방법을 연구하기 위

한 과정으로 기획됐다. 강의는 이슬람의 태 동과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생애를 비롯해 꾸 란 해석, 이슬람 신앙과 신학, 무슬림 전도와 제자양육, 이슬람 사회와 법, 국내 무슬림 사 역, 이슬람 근본주의 등에 대한 심층적인 내 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슬람 문화와 신학적 흐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제적인 선교 전략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웨트 칼리지 글로벌 디 아스포라 연구소의 현한나 교수, 한국이슬람 연구소 권지윤 박사, 온누리교회 박미애 박 사, 한이강 대표 소윤정 교수, 중동아프리카 연구소 공다니엘 박사, MPM 박병 교수, GMS 정형남 선교사, 아신대 김종일 교수, 앳 살람 레이먼드 김 목사 등 이슬람 연구 및 선 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 생명의 말씀 ■



함 정 호 목사

• 영화교회 원로목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음을 교훈하신 것이다.

“일과를 마치고 잠자려 할 때 기도해야 한다”

하루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언·행·심사간에 범죄한 것, 허물된 것, 불충한 것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

(엡 6:18~19)

있으면 회개하고 잠잘 때 보호해 달라고, 꿈이라도 범죄하지 않고, 더러운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몽중에도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뜻을 준비, 내일 새 날 뜻을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 기도해야 한다.

“잠에서 깨어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한다”
밤중에 보호해 주시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꿈이라도 범죄했으면 회개기도를 해야 한다. 새 날을 주시고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날에 계획하고 예정된 일이나, 예기치 않은 일이나 하루의 현실을 통고할 때 주 안에서 자타구원을 이루는 자로 통고해 해달라 기도해야 한다.

“어떠한 장소에 가게 되면 기도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해야 하고 이 장소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실행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장소를 떠날 때 악한 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해야 한다.

“머물고 있던 장소를 떠날 때도 기도해야 한다”
그 장소에 머물고 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회개해야 하고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식탁에 앉았을 때 기도해야 한다”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음식을 제공한 손길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의를 행

하고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기도해야 한다”
이 사건 처리를 우리 단독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건 처리를 위탁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자타구원이 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에 기도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사이에, 형제사이에, 친구사이에,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거나 그 사람과 관계에서 언행 심사간에 범죄하지 않고 조심하여 덕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면

으로 조심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일의 결과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일이 성공하면 성공케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방심하거나 교만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패했으면 원망, 낙심, 좌절치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장래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사물을 취급하고 관리할 때에 기도해야 한다”

사물관리와 취급을 철저히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사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동 정

한동대 2.0프로젝트 장학금 수여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지난 3월 10일 대학본관 현동홀에서 ‘2025학년도 우수 입학생 장학금 한동 2.0 프로젝트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각각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시행된 ‘한동 2.0 프로젝트 장학금’은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 중 우수한 인재들에게 지급되는 ‘에스켈선교회 장학금’, ‘차세대 리더(이윤섭 장로) 장학금’ 등으로 구성됐다.

임성진 박사 목회자 세미나 인도



미주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WMU)가 최근 뉴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이란 주제로 뉴욕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목회와 설교(김영길 목사), 목회의 영성(남종성 교수), 목회의 지혜(김영길 목사), 목회와 가정(최윤정 교수) 등의 제목으로 진행됐다.

김정택 단장, 열린음악회



김정택 SBS명예예술포럼장과 교회오빠 지송이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오는 4월 6일 주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신목로에 위치한 영성교회(담임 최효식 목사)에서 개최된다. 김정택 단장은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1991년 SBS개국과 함께 SBS관현악단 지휘자로 취임해 SBS관현악단과 무용단, 합창단을 총괄하는 SBS 예술포럼 단장을 역임했다.

전국기독교수련협회



전국기독교수련협회(이하 전기연) 제22대 회장에 안종복 교수가 선출됐다. 지난 3월 15일(토) 오전 서울 강남구 영동교회에서는 ‘제22대 회장단 취임 기념 기독교수 로고스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 기독교 수들의 역할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지연 대표 초청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진행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교육문화부 주관으로 열린 ‘제47회 미래 지도자 세미나’가 재경·중부, 호남, 영남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대구제일교회에서 570여 명이 참석한 영남 지역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전 12:13)는 말씀을 주제로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의 필요성과 가정과 교회에서의 교육법이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성경적 성 가치관 강사로 선 한국가족보건의 김지연 대표는 성교육의 역사, 결혼·생명·아기배 참사랑의 개념, 성교육의 흐름과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성경적인 성교육의 실상을 알리며 기독교 양육자의 효과적인 교육과 대처 방법 등을 강연했다.

특히 비혼주의로 치닫고 있는 차세대에게 알려줘야 할 결혼의 의미와 기능, 책무성을 강조하며 미디어 앞에서 지켜야할 절절함과 차세대와 진리의 말씀을 소통하고 강론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다뤘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자들이 차세대를 방임하거나 그들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단 3분만이라도 성경적 세계관을 강론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동성애, 성전환, 낙태, 음란물, 결혼, 연애, 혼외 동거 등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 은유하되 분명하게 성경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사례를 제시했다.

논 평

한국교회언론회

국회의장은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없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29건의 탄핵(彈劾)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국적이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와 대외교 문제에서도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요 인사마다 거대 야당이 완력(腕力)으로 ‘탄핵’을 상시화하는가?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그런 과정과 결과에는 국회의 잘못된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탄핵 거수기’로 선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다. 그는 국회에서 국가 요직에 있는 인사들을 탄핵할 때마다 의사당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12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요구하였다.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못할 인사로 평가받는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마은혁 판사는 법조계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편향성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한 단체)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판사 시절에도 정의당의 노회찬 출판 기념회에 당당하게 참석하여 기부하고 정치적 참여와 함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

그에 대하여 같은 좌파 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그가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되므로, 현재 재판관으로의 임명은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의 대행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에게, 마은혁을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와 헌재를 앞잡아 보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맹비난하였다. 우 의장은 왜 모르는가? 국회가 하는 일마다 국민들로부터 앞잡아 보이는 일들만 하고 있고, 국회의장 자신은 이 나라를 위험천만하게 만들어 가는 장본인이 되고 있음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들을 해온 마르크스-레닌주의자를 헌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라고 욕박지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할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마은혁 말고는 없는 것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힘과 횡포를 뒤집어쓰고,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가볍게 본 모양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더군다나 20, 30대 젊은 층이 깨어나니, 매우 불안하고 조급해진 모양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장인 입법부 수장이 명예와 체면도 구기면서 민주당을 돕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선 것은 딱한 일이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힘의 논리로 수많은 탄핵 소추를 결정할 때,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국민들은 그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서 부결이 되자, 울먹을 먹히며 잠시 동안 말을 잊지 못하던 모습이 다. 참으로 낭패스런 광경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투표에 앞서, 재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하였다. 이는 ‘헌법 해설서’를 무시한 것이다(여기에서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의원 3분의 2로 봄)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직으로 보아, 자기들이 추천한 마은혁 등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현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 할 수 있음) 그런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탄핵 소추

의결은 총리와 장관급으로 낮춰 처리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여 주었다.

나중에 이 문제는 현재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문에서 다뤄졌는데, 헌법 재판관이 묻기를, 왜 국회의장이 그 중요한 문제를 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보지 않고, 단독적으로 선언하듯 처리했는가를 확인 하기도 하였다. 즉 국회의장이 지나치게 자신감(?)으로 독단적으로 졸속 처리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월 7일, 나라가 혼란하고 시끄러운데, 중국의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이때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만났다. 문제인 대통령 시절에 문제인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워 8기를 ‘혼밥’하다 왔는데, 국회의장은 단번에 시진핑을 만나게 된다. 과거 문제인 정부 때 국회의장이던 박병석, 문희상 의원이 시진핑을 만나지 못했었다.

결국 우원식은 시진핑을 쉽게 만났으나,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면담이나 접견점으로 만난 것이다. 인민일보도 ‘회담’이 아니라, ‘회견’(會見)으로 보도했다고 한다.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중국을 찾은 외빈은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브루나이, 태국 정도의 정상들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되어야 … WEA서울총회 반대 한기총포럼 개최

WEA 서울총회 추진하는 일부 대형교회 배도중단 촉구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노스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3월 13일(목) 오후 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실행위에 앞서 드러진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제주시 방화장 안재홍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전임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민 14:6-9, 사 3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눈여겨보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넉넉하게 얻도록 하신다. 아울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전하고 모든 것을 함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전임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실행위원회에서는 2부 회의에 앞서 먼저 정책위원회 조용목 목사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이어 총회장 김영준 목사 주제로 열려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절망,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



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오세준 목사는 25년도 목사고시,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2025 전국청년 동계연합수련회 개최,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원 개강(신학원무원, 목회대학원), 교계소식으로 한기총 제36회 정기총회, 교경중앙협의회 제52차 정기총회 등을 보고했으며 제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역자가임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 교회전출임 청원, 교역자전출임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등의 내용이 결의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정기지방회를 2025년 4월 10일(목)까지 마무리하고 임원개선사항을 알려줄 것과 필리핀 정기지방회 개최와 아시아태평양 신학대학원(APTS)

이사회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실행위원들은 일부 대형교회에서 WEA서울총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를 출범시킨 후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교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WCC와 판박이인 이들의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대통령의 탄핵선고 기각되어서 용공, 사회주의자들의 자유민주주의와 교회를 훼손하려는 세력의 준동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저지를 위해 법안이 폐기되도록,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한 응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내에서의 세심한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순복음광주신학교 입학식 및 개강예배

광주신학교

광주신학교(학장 최정식)에서는 지난 3월 3일(월) 오전 11시 본교강의실에서 입학식과 개강예배를 드렸다.

학생처장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민경술 목사가 기도한 후, 본교 학장 최정식 목사는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권세자가 되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선지학교에 오신 신·편 입생과 재학생들을 환영한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 받았음에 감사하고, 예수증인의 사명 감당을 위해 성경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강력한 권세자들이 되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팽배하고 죄악이 광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생도



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라"고 당부했다.

고 정찬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오찬을 나누며 훈훈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부흥사의 삶 다짐

부흥사회

교단 부흥사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3월 4일(화) 오전 11시 천안순복음침아름다운교회(담임 안병찬 목사)에서 2025년 새해 첫모임과 신년 행사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안병찬 목사는 마 2:1-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으로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 부흥사들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온전히 그의 별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나



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길수 목사(수석부회장), '교단과 정책위원장을 위하여' 옥보애 목사(재무), '각종 반 성경적 악법제정 저지를 위해' 임형순 목사(부회장), '다음세대를 위하여' 김남수 목사(회계), '예하성 부흥사회를 위하여' 성기찬 목사(서기)가 각각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침아름다운교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누고 2부 신년계획 시간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될 부흥사회의 행사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고 차담회를 통해 임·회원들간의 근황과 소식을 나누며 부흥사들 간의 끈끈한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3월 11일(화) 반석샘물교회(담임 배길선 목사)에서 3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은숙 목사(선한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 후에 지방회 총무 서성영 목사(북원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강신홍 목사(주사랑교회)의 기도와 총무 목사의 성경봉독, 사모장창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24:44-46 말씀을 본문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종들이 되어 몇백만의 양식이 아닌 단단한 음식인 스테이크의 양식을 나눠주



어 창세기 22장의 마카리우스의 복을 받아서 예멘을 회복하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종들이 되자"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서, 특별히 박흥열 목사, 고성록 목사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에, 박서현 목사

(창대교회)의 헌금기도와 김미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찬양교회)의 인도로 3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친 후, 반석샘물교회에서 정성준 준비한 선물과 쿠키 쿠키 우에서 중식 후, 박서현 목사의 섬김으로 인근 찾침소에서 4월 정지지방회를 위한 임원회와 교제를 나눈 뒤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삶 다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성규 목사)는 지난 2월 20일(목) 오전 11시 사랑의교회(담임 김영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성규 목사(순복음생명의나무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최원성 목사(예수기쁨교회)의 대표기도, 교단 전임총무 정진균 목사(확원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전 12:13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선악 간에 행위와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다.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의 노년의 고백은 헛되고 헛된 잠 만족이 없는 삶을 고백했다."며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



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도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선한 삶을 살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받는다. 땅의 것을 찾고 말고 위에 것을 찾으며 선한 삶을 살면 그것이 진정한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전 3:12). 우리 인생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엡 2:10-13)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국은 천국임성이다. 천국 꽃대의

삶은 내내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착하고 선한 땅에 선을 행하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에스트 목사(예빛교회)의 헌금기도, 서범근 목사(진주순복음교회)의 특송으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1층 주꾸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사랑의교회에서 섬겨준 식사를 하며 즐거운 친교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역감당 다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2월 24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91-777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주성 목사(순복음민들레교회)의 대표기도, 천준영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고후 3:6-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재언약의 사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에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



심으로 기도하고, 홍찬일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조정희 목사(주님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세움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쇠고

기, 돼지고기, 외국달리 등)로 행운권 추첨을 하고, 인근식당으로 옮겨 맛난 식사를 했다.

이후 가까운 찾침에서 교제를 나누고 3월 월례회 때 만날 것을 약속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여수 오동도에서 봄 야유회 가져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김상운 목사)는 지난 3월 10일(월) 전남 여수 오동도에서 봄 야유회를 가졌다.

그동안 이리저리 사정으로 전북지역을 벗어나 남해안쪽으로 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여행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안고 야유회에 나섰다.

출발 전 지방회장 김상운 목사의 인사말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성천 목사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 합심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 전임회장 표재욱 목사의 안전한 여행과 하루 일정을 위한 마무리 기도 후 여수 오동도를 향해 떠났다.

도착하여 오동도 투어 전 정성영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식사기도를 한 후 오동도관광을 했다.



동백꽃이 예쁘게 여기저기 피기 시작했고 날씨가 좋아 여행하기에 이상적인 날씨를 하나님이 선사해 주셔서 다나기에 무척 좋았다.

지방회 회원들이 바쁜 일상을 떠나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거닐고 해상게이볼카를 타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생명의 공급

을 체험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카페로 이동해 지방회장 김상운 목사가 섬겨준 베이커리와 음료를 마시며 바다를 보면서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저녁식사는 남원 정종승 목사가 섬겨주어 맛있게 추억을 먹고 각자 사역지로 향했다.

정지지방회 개최하고 신·구 임원 교체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오세준 목사)는 지난 3월 11일(화) 순복음참좋은교회에서 정지지방회를 개최하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박은진, 이상수 전도사의 찬양인도와 지방회장 오세준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예정된 목사의 대표기도, 이경진 목사의 요 20:24-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 지방회원들은 총회를 위해, 지방회를 위해, 지방회 회원들의 건강한 목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김장수 목사의 헌금기도, 탁정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정지지방회는 전임 지방회장 문찬



우 목사 주재로 지방회 총무 전한배 목사의 회원점명 후 기록 서기 선출, 전한배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 각종 행사 및 총무·서기 보고, 재정 보고, 감사 보고, 예산안 심의 후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22차 임원으로 지방회장 오세준 목사(순

복음참좋은교회), 총무 박태균 목사(순복음하늘샘교회)를 선출하고 임원은 2명으로 한 해를 운영할 것을 결의하고 육준수 목사의 기도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오찬을 나누며 목회의 피로를 풀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그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쟁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구미 등에서 ‘세이프 코리아’… “자유대한민국 지켜 후대에”

전국 12개 도시에서 열려…전한길 강사 등 연사로 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참여 및 연설



전한길 강사가 연설을 하고 있다. 주최측 제공

세이프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하 세이프코리아)가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구미, 대전, 부산, 울산, 세종, 순천, 전주, 제주, 춘천, 포항, 청주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열렸다. 이 가운데 세이프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와 한국사 전한길 강사가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구미역 일대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측 추산 4천여 명이 운집했다. 성만순 사모(세이프코리아 구미 부대표)의 사회와 전용남 목사(구미신원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기도회에서는 먼저, 세이프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세계로 교회)가 인사 메시지를 전했다.

“목숨 다해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손현보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영웅이요, 오천 년 동안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풍요를 선사한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지요, 주축 사업으로 이 나라를 살렸던 곳이 구미”라고 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없었던 편 쥐도 새도 모르게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쿠바, 캄보디아, 홍콩과 같은 나라를 보라. 잘 살던 나라도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져 몇 년 안에 무너졌다”며 “우리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까지 법을 무시하고 구속하는 것을 보았다. 6.25 인민재판과 중국 문화혁명 때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나라는 언론과 방송, 사법부와 노동계, 교육계는 물론, 심지어 종교계 안에서도 중북 좌파가 판을 치며, 누구도 제재를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를 민주당은 공작, 회유, 선동으로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금했다”며 “이번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상상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책임은 철저히 사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헌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반국가세력들을 적절해야 한다. 독립운동하듯이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물러서서도 안 된다”며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은 없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싸워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제시대 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많았고, 6.25 전쟁 때는 고지 하나를 탈환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십 만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뿌렸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목숨을 다해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최문선 목사(구미송정교회 담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대하 14:11) △권오수 목사(김천신광교회 담임)가 ‘정글갈게 하리라’(욥 23:10)라는 제목으로 각각 메시지를 전했다. 기도회는 문군식 목사(운유한 교회)의 인도의 나라를 살리는 기도(통성기도), 이병도 목사(세이프코리아 구미 대표)의 축도 순서로 마무리됐다.

다음 2부 국민대회 순서는 김복연 목사의 오프닝 멘트, 국민의례, 윤석열 대통령 응원가, 내빈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참석된 정치인들의 발언이 있었다.

“탄핵 각하만이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



세이프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5일 경북 구미에서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측 제공

의 다시 살리는 길” 먼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구미는 보수가 태생된 보수의 성지다. 그리고 불세출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를 겪으며 삼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으로 재무장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삼대 검은 카르텔 세력을 적절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의 불공정, 불법, 정적 편향을 여실히 보았다”며 “이것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각하만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자유의 파도, 그 시작은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 탄핵 재판이 여기까지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며 “민주당의 거짓 내란선동의 독이 무너지고 있다. 이 내란 사기극을 끝내려면 대통령 탄핵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자유와 방파제, 대한민국의 힘으로 자유의 파도를 만들어서 북한 땅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기는 그날까지 자유의 파도를 거세게 만들어 보자”며 “그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 탄핵 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부터”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박대출 의원, 구자근 의원, 강병구 의원, 김민수 前 국회대변인, 자유민주당 교영주 변호사 등이 발

언했다.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

이어서 ‘체제 전쟁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이성구 공동대표(부산통일광장기도연합)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며 “주사파 및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며 로마서 3장 10~18절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인 줄 착각하여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북한 지도자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선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인정하며 겸손히 의전을 구하며 함께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 각하되어) 이 땅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자”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위해 싸우는 나라, 대한민국과 미국”

다음으로 보수 유튜브 노매드크리틱,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유튜브 하세베 등이 연설했다. 김상현 대표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35세 때 성경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원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제가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유는 공산주의는 사탄·마귀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못 믿게 한다. 저와 여러 분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 밖에 없다.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며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 있고, 성경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 위기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다. 그래도 살아 있는 교회가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며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외쳤다.

이어서 학생들의 메시지 순서가 진행됐다. 아스팔트 인생 10년차 이드보라 학생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자’ △노승주 학생(카이스트)이 ‘모든 중국인은 잠재적 간첩’ △김민섭 학생(서울대)이 ‘87 제왕적 의회제 혁파’ △김태우 학생(영남대)이 ‘자유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합시다’ △조윤규 학생(경북대)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강인묵 학생(전남대)이 ‘지켜낸 자유, 지켜낼 미래’라는 주제로 각각 메시지를 전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여 후손에 물려주기 위함”

마지막으로 ‘윤통 복귀와 제2의 건국’이라는 주제로 연설한 한국사 전한길 강사는 “구미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여기 오기 전 육천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인사하고 왔다”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소개했다.

전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복귀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주장이 있다”며 계엄선포 이후 지난 100일 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또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과연 누가 공정하고, 법치를 존중하는가”라며 “그리고 공수처도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 거짓이 드러났다”며 언론매체에 거짓 없는 진실된 보도를 요

청했다.

이어 “SNS를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우리가 지지하는 당의 모습이 맞는가”라며 “저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진실만을 말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념이다. 2030세대와 자라나는 10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진실만을 알려 주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하다. 다음 주로 예상 대는 현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헌법재판관들 향해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하다. 국가를 살리고, 국민들이 나뉘지 않고, 헌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탄핵 각하 결정이다. 탄핵 각하가 될 때, 먼저는 헌법재판소 안에 불법 심리가 많았는데, 탄핵소추 구성 요건이 되지 않기에 불법 요소들을 용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폭력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친중 세력으로 인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해지고 그리하여 2030세대와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지금의 선관위·헌재·공수처의 문제와 민주당의 폐악을 물렸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곧 계몽령이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기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한길 강사 등 주요 연사들이 함께 하는 세이프코리아 전국순회가 다음주 2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예정이다.

불법부당한 탄핵정국을 바로잡고 부정선거 대책 마련, 지역 균형발전 위해 기도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 2025년 제3차 기도회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진동용 목사)는 2025년 제3차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도회 및 간담회를 지난 3월 4일(화) 오전 11시 오성침단의 료재단에서 개최하고 불법부당한 탄핵정국을 바로잡고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화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실무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이현상 장로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고문 강상철 목사의 설교,

고문 신상우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잠 3:8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번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잘라내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접붙였던 그 사람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그 가지도 하나님께서 잘라내 버릴 수 있다고 하셨으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열린 2부 기도회는 공동회장 황상성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박차영 목사, ‘아산시 복음화를 위하여’ 홍은식 목사,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차주병 목사, ‘차별금지법과 WCC 반대를 위하여’ 조재수 목사, ‘오성침단전흥 재단 발전과 이명수 이사장을 위하여’ 안상욱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서 3부 간담회는 조이철 목사의 인도로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의 인사말, 강희복 전 아산시장의 축사, 오성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명수 자문위원(전 국회의원)의 환영사 및 본사 현황보고,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인사말 순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와 정치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



졌다.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예하성 전임총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 탄핵정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아산시기독교지도

자와 함께 더욱 기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늘 초청하여 주시고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이명수 오성침단의료재단 이명수 이사장에게 감사의 드리고 참석하신 회원들에게 환

영인사를 전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조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뒤 다음 모임을 기억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한기총, 신학교수들과 WEA의 신학적 문제 제기

고경환 대표회장, WEA 배도로 보여지는 요소 및 행위 백서 통해 밝힌다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WEA 서울총회를 반대하며 5차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한기총이 문제를 제기한 인사에 대해 WEA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총은 사임한 WEA 전 총무 토마스 슈트마허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과 그와 관련한 지도부 인사들의 신학적, 신앙적 문제들로 인해 수년 전 WEA와의 관계를 이미 단절했다. 한기총은 WEA의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저명한 신학교수들과 포럼을 계획했으며, 발제문과 일시는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WEA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 조직신학적 관점에서의 이단성과 실천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경관 문제를 세밀하게 다룰 예정이며, 발간



될 자료를 전국 교회에 배포하여 WEA의 실상을 한국교회에 밝힐 예정이다.

대표회장 고경환牧사는 “WEA와 내부 지도자들 대한 신학적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WEA의 배도성으로 보여지는 요소 및 행위에 관한 백서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밝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과거에도 선배들이 개최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고 하는 오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선교 140주년 축복대성회 개최

한국기독교영광교회, 지난 2~5일 큰기쁨의교회서

한국기독교영광교회(대표회장 김순희 목사)는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큰기쁨의교회(김순희 목사)에서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 축복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회는 준비위원장 조종환 목사(총본부장, 임마누엘교회), 진행위원장 송강술 목사(사무총장, 낙원교회), 진행위원 김옥순 목사(회계, 주찬양교회), 김반석 목사(회의록서기, 중화교회), 우사람 목사(찬양총무, 참복된교회)의 진행으로 개최됐다.

첫째 날 개회성회에서 전임회장 김용희 목사(꿈이 있는교회)는 ‘복음의 능력’(행 3:1~6)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며,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한국기독교영광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둘째 날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양교회)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겔 36:26~3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하



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셋째 날 상임총재 이선 목사(새로운중앙교회)는 ‘영원히 함께 하소서’(창 6:1~3)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묵묵히 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선포했다.

살롱나비,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기각되어야 한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성장하였고,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큰 체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을 존립할 수 있게 해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반국가적 정치세력과 종북좌파 세력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세력들은 헌법재판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으며, 이는 탄핵이라는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 채움 등 비리와 불법을 일삼아 왔으며 전산시스템의 조작가능성에 대해 무방비로 일관하는 등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무색하고 허술하게 관리함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야기시켜 우리사회의 갈등 원인을 제공하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이며, 삼권분립과 견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입법부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권한을 획득한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이미 다수의 이념적, 경제적 범법자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거절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29년의 쫓탄핵과 국정수행 훼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살롱나비는 좌익사상에 물든 이념적, 경제적 범죄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음을 천명한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고,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대통령을 다시금 중심으로 삼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좌익세력 및 그들을 선동하여 정치적, 이념적 혼란을 획책하는 종북 세력들에 대한 분명한 제어가 있어야 함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조들의 희생에 의해 이룩된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함을 선언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2일간 공수처에 의해 불법구속(拘束)되어 있다가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으로 석방되어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의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살롱나비는 비상계엄을 통해 나타난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거대 야당의 비단처럼 내란이 아닌 분명한 명하게 천명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대한민국 위기의 신호를 각성시킨 계몽령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임박한 국가위기에 대한 교육지책의 경고였음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에 45년만에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

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상계엄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내란이라 매도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대 야당은 좌파이념으로 하나가 되어 총 29건의 탄핵소추 및 각종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소위 “입법 내란”을 자행하였고,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함으로써 국가행정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심각히 훼손하였다. 실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거부하는 좌파 거대 야당은 최근 그 동안 자신들이 했던 예전의 말들과 모순됨에도 돌연 자신들이 보수적이고 시장경제체제를 긍정하는 정책정당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허위 선동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속임수이며 간사한 수작일 뿐이다. 그들이 이미 통과시킨 법안들은 대한민국 내 간첩이 활개치고, 파주군 포퓰리즘을 통한 경제 위기를 불러올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준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반드시

러한 면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적법했고 시기적절했음을 우리는 선언한다.

3. 비상계엄은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이 잘 마무리 된 계몽령이었음을 선언한다.

만약 진정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잡아들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결코 국회의원 한 명도 국회 안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더 큰 봉변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제지당하지 않고 국회로 진입했으며, 국회는 군인들에 의해 방해됨이 없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의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의 결의를 따라 바로 계엄을 해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사항을 밝혔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이름만 있었을 뿐 그 안에는 폭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인사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거대 야당과 좌익세력은 일부 관련자를 합작 회유하여 내란이라고 선동하며 대통령이 체포조를 운영하여 죽이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한 더 큰 인명살상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통령을

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자체로 존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좌파 이념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음을,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헌정을 수호하여 헌법을 지키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해 주길 촉구한다.

5. 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석방한 것은 사법부의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선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지귀원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인용 후 3월8일 5시경에 석방되어 대통령 관저로 복귀하게 되었다. 지귀원 판사는 윤 대통령에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내란 수사, 불법체포와 영장 소핑, 28시간 불법구금을 판결하여, 구속취소를 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52일간의 공수처 주도 내란 물이, 영장청구와 구속이 불법적이라는 것이 사법부에 의하여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재판소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당연히 각하할 것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은 그 직무에 신속히 되돌아

에서 민주당·통합당 득표율이 63:36이라는,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정한 패턴이 나와서 선거관리 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의혹을 받아왔다. 선관위는 국회, 법원, 현재처럼 독립된 헌법 기구로서 감사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이 의혹을 풀어줄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고 부정이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하여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고자 한 것이며 이는 비상계엄의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선언한다.

7. 대통령 탄핵 소추는 반드시 각하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국민들은 주요 보수 언론자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 조차도 왜곡된 보도를 일삼음에 언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자유민주시민회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각하 내지 기각이 48.9%, 파면이 48.5%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른 윤 대통령의 석방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1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각각 찬반 지지자들의 집회현장을 찍은 드론 사진은 탄핵반대

현재는 이를 각하하는 것이 마땅함을 선언한다.

8. 87체제 헌법의 악점, 다수당의 의회독재, 탄핵남발, 국회의원 득권 등을 제한하고, 선거정의를 구현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한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통령 8명 중 4명이 구속됐고 1명은 목숨을 잃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 3명 중 1명은 파면됐고 1명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탄핵남발을 막기 위해 기각시에는 탄핵발안자들이 1년간 권한 정지 등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법을 제정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사법기관을 협박할 수 없도록 하는 탄핵 제한 및 처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해산 및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나 보안법 위반 범죄자들은 결코 입법, 사법, 행정기관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 전과자가 정치라는 현실에 들어올 수 없도록 분명한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개인의 이득을 위해 정치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윤리적 기준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해산권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특수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로서 거대 입법 세력의 견제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정국 안정을 위해서 미국식 러닝메이트 부통령제를 신설하여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바로 승계해서 남은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도 헌정의 대환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고려해 볼만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입법부,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탄핵을 기각하고 문제점을 평화롭고 균형잡힌 관점으로 부터 다시 해결하자고 외치는 애국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주기 바란다. 시대 요청에 부응하는 헌법수정과 아울러 선거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책의 기반이다. 아울러 선관위의 부패를 엄중히 처벌하고 최근 국회 입법청원이 완료된 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통합선거인명부를 공개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정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당일투표와 현장수개표를 전면 실시하여 해킹과 부정선거를 원천차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또한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행정부의 독립성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번 사태가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자유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정치사회적으로도 자랑스럽게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5년 3월 12일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입법부,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탄핵을 기각하고 문제점을 평화롭고 균형잡힌 관점으로 부터

다시 해결하자고 외치는 애국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주기 바란다.

이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하는 바이다.

2. 이번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시행되었음을 선언한다.

비상계엄은 현행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과거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불필요하고 안타까운 경험들을 만들어내었지만,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적법하게 시행되었음을 우리는 선언한다. 거대 야당은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선동하여 국무회의 및 절차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무위원들이 적법하게 참여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이후 대통령이 이를 시행했다는 면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또한, 국정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대통령에게 존재한다. 따라서 좌파이념에 물든 거대 야당의 국정 훼방, 부당간섭,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격, 입법 난단, 예산안 난단, 선관위의 타락 등은 분명 국가적 혼란의 시작이었고, 사회적 혼란의 적나라한 현실이었다. 이

탄핵하지 않으면 또다시 계엄이 선포된다 고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123 비상계엄의 경우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폭력을 명령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상계엄령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잘하고 있는 국민을 일깨운 계몽령이었음을 선언한다.

4. 헌법재판소는 좌파이념에 편향된 우리법연구소의 영향에 물들었다는 국민적 우려를 스스로 벗어버리길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말하는 각본을 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고 있음을 대놓고 밝힌 바가 있다. 이미 3명의 우리법연구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과를 정해놓고 대통령을 탄핵 인용으로 몰고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거대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지도자로 알려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투입시킴으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탄핵 심리를 끌어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 보루

와야 함을 선언한다.

6. 비상계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정과 부실한 선거관리 및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그럼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 발동이었음을 선언한다.

비상계엄시 대통령은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복사하도록 파견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등 부실한 선거관리 운영으로 비난받아 왔다. 전 사무총장의 부자세습 채용비리를 위시한 선관위 직원 자녀의 세습고용 등 1,200여 건의 채용비리는 선관위가 가족회사란 명명을 갖게 하였고, 그럼에도 헌법기관이란 명목으로 스스로 외부의 수사를 받지 않도록 성역화하며, 비밀번호가 12345와 같은 허술한 선거관리와 북한과 같은 외부세력의 핵심지도자로 알려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투입시킴으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탄핵 심리를 끌어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하여 2020년 17개 사전투표 선거구

몽골에 복합 체육시설 건립

몽골지원협 울란바트로시에 에어돔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

몽골한국경제지원협의회(회장 김동근 장로, 이하 몽지협)는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몽골 울란바트로시 바양주르흐구청과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약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구민은 물론 전문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것으로, 몽골 울란바트로시 바양주르흐구 톨강 일원에 국제규격의 에어돔 축구장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부대시설, 캠퍼장, 녹지시설 등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립키로 계약했다.

이들위해 몽지협은 사업을 알리기 위해 울란바트로시의 허가과 해당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 바양주르흐구와 협의하여 구청장, 각 정부 부서별 대표, 각 동별 대표, 시의회, 구의회, 군경찰, 시민대표 등 관계자들과 4차에 걸친 공청회를 가졌으며, 의회 의장의 승인하에 이번엔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바양주르흐구청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자르갈 사이항 바양주르흐구청장 및 각 부서 임원들과 몽지협 김동근 회장, 최도권 법률고문(선진그룹 회장)등이 함께

했다.

계약식에서 바양주르흐구 자르갈사이항 구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바양주르흐구의 얼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면서 “몽지협 회장님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몽지협 김동근 회장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돼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과 특히 몽골 어린이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 몽골선교에도 힘쓰겠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최근 몽골은 토지 배분 불가에 관한 국회가 개정된 상황이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 스포츠 분야 정부-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게 돼 가능하게 됐다.

특히 에어돔을 적용한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은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여 각종 스포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시 제물량로 일대 ‘1885아펜젤러선교길’ 지정

인천시 중구가 지난 3월 14일(금) 제물포항(현 인천항)에서 한국 선교를 시작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물량로 일대를 ‘1885아펜젤러선교길’이라는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공익성과 사회적 헌신도를 고려해 특정 도로구간에 부여되는 상징적 명칭이다. 이번에 지정된 ‘1885아펜젤러선교길’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순간을 기념하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항동1가 5-39번지)’에서 시작해, 아펜젤러가 1891년 설립한 인천 중구 내리교회(내동 29번지)까지 이어진다. 해당 도로의 총 길이는 약 1.8km로, 아펜젤러가 제물포

항으로 입국한 후 선교 활동을 펼쳤던 개항장 일대가 포함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은 내리교회(김흥규 목사)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며 “구간의 시·종점에 갈색 명판과 안내시설을 설치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인천 중구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중요한 장소”라며 “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을 기리고, 순례자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성령충만!

밤하늘에 총총한 별들 그 얼굴을 내밀 때
밤하늘의 신비 별들의 축제 천국의 꽃이 만발하였네.

아 인생의 무지함이며,
영롱한 밤 하늘에 수놓은 저 장엄한 별빛들 ...
그 수를 헤아릴지 누구일가.

저 별판 가로질러 바람 따라 일렁이는 초원의 향연
이름모를 들꽃들이여 ...
그리고 갈매기 고동소리에 출렁이는 광활한 바닷물
뛰어노는 물방울이여.

오 주여 당신은 세계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당신없는 하늘도 주님 없는 바다도
부스르기 없는 뺨처럼 물방울 없는 바다처럼.

아 멈춘 시간이며 바위가 닳아 모래가 될만큼
흐르는 시냇물 위에 떠가는 뗏음이 꽃잎따라
심산유곡 흐르는 순결한 냇물처럼
내 마음에 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주여 죽음이 우리를 세상과 갈라놓을 지라도
영원한 생명 그라운 고향에 이르도록 ...
아 진리의 전당 멈춘 시공이여 영원하여라.
아 진리의 정원 아름다운 신학의 금자탑
오늘은 한국을 향해 ...
그리고 내일은 전 세계를 향해 거룩한 웅지(雄志)로
비상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불태우리라.
그리스도의 영광 불태우리라.
위대한 약속교회 1000년 집회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강사 피종진 목사와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의
집회가 은혜가운데 성령충만의 역사가 가득했다.
지선협 강영준 목사의 협력으로 대광장을 이루었다.
모두 나와서 영접기도와 천국행진곡으로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
오늘도 내일도 전도충만!

가족세트전도 총괄사무총장 이 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신장기증 드러머 리노 홍보대사 위촉

장기기증운동본부...투석 치료로 선교조차 쉽지 않았던 아내에게 생명나눔

(제)사망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 3월 12일(수) 세계적인 드러머이자 문화선교사인 리노를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리노는 미국의 권위있는 드럼스틱 브랜드 리갈팁에서 선정한 아시아인 최초 월드아트스트 대표 뮤지션 50인에 등재, 진동메트로놈 글로벌회사 사운드브레너에서 월드뮤지션 5선정, 아티스트 최초 XR 어플리케이션 발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라이브사이트 파날레 단독 공연, 세계적인 악기회사인 젠하이저, 엔아이인스트루먼트, 프리소너스, 삼아디엔아이 등의 엠베서더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오고 있다.

그런 그가 지난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신장기증이라는 송고한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수술을 하루 앞두고 만성 신부전 환자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겼다.

리노의 아내 김미림 씨는 결혼 당시 언니에게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유지해 왔으며, 난임 판정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22



년 겨울, 안타깝게도 아이를 사산하는 아픔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지 못해 신장 기능이 다시 소멸되었다. 당시 응급 투석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아내의 고통을 지켜본 리노는 망설임 없이 신장기증을 결심했고, 2월 26일 아내에게 새 삶을 열어주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리노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지켜주고 기도해준 아내에게 그동안 반지

하나 선물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더 값지고 고귀한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그동안 투석 치료를 받느라 선교조차 쉽지 않았던 아내와 이제는 함께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리노는 “신장기증을 직접 경험하며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깊이 알게 됐다.”라며,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본부는 생존 시 신장기증인이자 후원자인 리노를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생명나눔에 배 및 기독교계 캠페인 등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함께 이어갈 방침이다.

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리노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라며, “그의 송고한 나눔이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대종교 5월호, 2025 캠퍼스 이단 현황

캠퍼스 내 침투 주의요망...기독교 동아리, 각종대회 개최하며 포교

2025년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활동에 대해 조사했다. 주로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IYF, 여호와 증인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접근하는 패턴이 이단 별로 비슷했다.

신천지는 길거리에서 대학생들이 훔쳐간 설문조사 등으로 접근했고, 하나님의교회는 신도인 학생들이 과제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았다.

IYF는 여전히 영어말하기대회, 굿뉴스코 해외봉사활동 등 자체 행사 홍보에 힘을 쏟았다. 여호와 증인은 캠퍼스 정문, 후문, 변화가에 가판대를 세워 책과 전단을 진열해 홍보했다. 대학생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에브리타임을 통한 미혹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캠퍼스 내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인연함께 등에서 이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단 단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이단 단체의 포스터를 제거하거나, 채플을 통해 이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관심이나 대처가 전혀 없다는 대학도 적지 않았다.

‘현대종교’는 5년마다 전국 캠퍼스 이단 현황을 조사해 왔다.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 청년들을 통해 파악한 대학별 이단 활동 현황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했다. -현대종교 5월호 참조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탄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입 010-9884-5594(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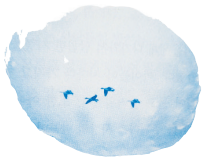
010-2731-5594, 010-9884-5594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꿈이 있습니다



몇년 전의 일입니다. 타임지에 국내 기업체인 대우 그룹에서 광고로 게재한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사는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History is Belongs to the dreamers)”라는 글이었습니다. 당장에 상품이 더 많이 팔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업 이미지를 좋게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비전’ (Vision)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비전은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전’ 꿈이 있어야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고대 정복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전해져옵니다. 그가 동방을 정복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번 전쟁에서 얻은 귀중한 전리품들을 그의 부하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금이며 각종 보물을 남김없이 부하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한 신하가 왕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모두 나누어 주시면 대왕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가시렵니까?” 잠시 후 알렉산더는 말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가겠네.”

알렉산더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꿈이 없으면 사막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꿈을 잃으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노인들 중에서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다는 말로 대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꿈 하나로 승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꿈쟁이’였습니다. 많은 시련이 닥쳐왔어도 넘어지지 않고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은 위대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의 참된 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욥 2:28)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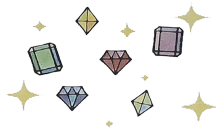
나는 보물섬에서 산다

내 몸의 세포가 시를 향해 열린 그날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된다.
떠오르는 글귀가 가슴 설레어
잠 못 드는 밤이 행복하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감성을 노크하며 불러낸다.
무엇인가 메모하느라 선잠을 자는
이 순간이 너무 좋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았다면
얼마나 건조하고 메마른 심성이 되었을까?
얼마나 삭막한 관계 속에서 상처투성이
인생길을 가고 있을까?



누군가 그랬지...
일상적인 삶에서 보석을 찾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온통 주변이 보물섬이 된다고...
내가 찾은 보물섬은 바로 성경..
그 안에서 보석을 찾는다.
말씀의 영감으로 찬양시를 쓰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날을 바라며 보물찾기를 하면 된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야지나.. 가나안..> 제목의 글을 쓰고
뒷면에 느낌을 써 놓은 글이다.
어느날 다시 읽으며 글의 제목을 보니
어엿한 작품이 되었다.

사설

막무가내가 통하는 국가기관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썩어빠진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후진국에서도 이럴 수는 없을 것인데 라는 자괴감이 앞서기만 하다. 선관위 얘기가.

감사원이 2월 27일에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우리의 기존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이다.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라든가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하곤 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국가기관도 있나? 시도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에 체류했는데 이중 183일은 무단 결근이나 허위 병가를 낸 것이다. 그런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800만원을 챙겼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리관련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회가 ‘선관위 내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재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재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 나라는 막무가내로 우기면 통하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나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그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발 더 나아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감사원법 개정 불가까지 말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수군대고 있다. 왜 막무가내가 대한민국에서는 통할까? 문재인 정권에서 취급했던 대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정말 개, 돼지인가.

막무가내식의 버릇을 부려도 모두 다 통하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듯 아프기만 하다. 그렇다 면 헌법재판소는 막장 마피아처럼 행동하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이대로 방치하자는 것일까? 감시 사각지대에 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부패에 부패를 더하며 부패를 만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부정 선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미 투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도 필요없다고 이미 국민들은 개, 돼지이니까?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아도 알아차릴 리가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마피아식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감사하려고 감사원법을 바꾸지도 말라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일까? 나라를 망치게 하는 자들은 회전의자에 앉아서 끼리끼리 짜주면서 권력을 나눠먹고 비리를 맘껏 저질러온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만 나라가 산다.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축소하고, 국민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판사, 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구조를 바꿔야한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인데 선거소송의 피고인 선관위 책임자(선관위원장)가 현직판사다. 피고와 재판관이 한 집안이다. 그러니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다.

그래도 이 나라가 온전할까?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다. 소쿠리에 담은 썩은 복숭아를 들어 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소쿠리 속의 모든 복숭아가 썩어버린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법이다. 고름이 살아 되지 않듯이 썩은 곳은 도려내고 잘라내야만 온 몸이 성하고 살 수 있는 법이다. 썩어빠진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도 썩어가는 중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앉아서 재판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5-28)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관위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1.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꾼을 선출함에 있다.
 2.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일꾼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 회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1.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2. 임원 입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 제4조 총회임원 입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1.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담당자는 제출자의 입회하에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총회 임원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입후보 등록 가·부를 입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3.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등록한 입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관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 회원에게 공지한다.
 5. 선관위시행규칙을 위반한 입후보자 및 총 회원은 즉시 선관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 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관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관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6. 총회임원입후보자가 선관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관위는 입원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관위에 제출한다.
 8. 등록비는 총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입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입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 제5조 총회임원 입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1. 총 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2.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관광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총회 시 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인터넷, 유인물을 통한 선거운동
 6. 기타 선거운동.
7.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관위 공고일부터 정기총회 후 10일 까지 적용한다.
- 제6조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 각 1부씩**
1. 입후보 신청서(총회양식)
 2. 안수 증명서 (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3.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4.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5. 명함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6. 입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7.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8.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9.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10. 입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11. 가족관계증명서
- 제7조 부칙**
-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 | | |
|--------------------|---------------------|
| 2011. 3. 7. 제정 | 2012. 3. 5. 일부 개정 |
| 2012. 4. 16. 일부 개정 |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
| 2015. 3. 3. 일부 개정 | |

- | | |
|----------------------------------|-----------------------------------|
| 1. 등록마감 : 2025. 3. 31(월) 17:00까지 | 4. 문 의 |
|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재영 목사(010-7457-9768) |
|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조길수 목사(010-6646-2917) |
|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신 재 영 서 기 목 사 조 길 수